

※ 참조(테마주 분석결과)

구 분	주 요 내 용
다수 종목이 단기간 급등락 후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석기간동안 개별종목의 최고가와 '16.11.30 증가를 비교해 본 결과 평균주가는 최고가 대비 35% 하락하였으며, - 시장에 관계없이 테마주 16개 종목의 주가는 전체 지수하락보다 고점대비 최소 6.5%에서 최대 44.6%까지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내용이 없이 단기 상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6개사 모두 기업의 본질가치 상승과 관계없이 대선후보의 학연(학교동문), 지연(친인척 재직), 친인척 지분보유 등의 풍문, 루머에 의해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함
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주식수가 작은 중소형주 위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테마주 평균시가총액은 1,152억원으로 전체 회사당 평균시가총액 대비 7%, 코스닥시장의 경우 테마주 평균시가총액은 1,403억원으로 전체 회사당 평균시가총액 대비 79.8%에 불과함
개인위주의 매매참여 및 선의의 개인투자자 대규모 매매손실로 귀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전체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65%이나 테마주에서는 97%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 비중은 3%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- 테마주의 주가변동폭([최고가/최저가]-1)은 평균 130.1%에 달하여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- 분석기간 중 매매손실이 발생한 위탁자의 99.6%가 비전문가인 개인투자자로 계좌당 평균 손실금액은 191만원으로 분석됨 - 개인투자자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력 부재 및 뇌동매매로 인해 약 73%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거래대금 5천만원 이상의 고액투자자의 손실 계좌비율은 93%에 달함
테마주 편승 '메뚜기형 단기시세조종세력' 혐의 적발(관계기관 통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적호전과 같은 호재성 정보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테마종목을 대상으로 HTS 등을 이용해 단기(2~3일 간격 종목변경)간에 다수 종목을 시세조종한 혐의군을 적발하여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하였음
테마주 집중 투자계좌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적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석대상인 16개 종목중 10개 종목 이상을 중복 투자한 계좌는 843개, 14개 종목 이상을 매매한 계좌도 224계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이상호가 제출 계좌도 존재 - 이들 테마주 중복 투자 계좌에 대해서는 과도한 허수호가 제출, 상한가 형성·유지 행위 또한 시세상승 촉발호가제출 행위 등이 나타나는 경우 새로운 형태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